

2027
고2 문학
비상

2027 고2 문학 비상 | 3(1)(1) 공무도하가, 제가야산독서당 기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상 출제 유형

이 단원에서는 「공무도하가」와 「제가야산독서당」에 나타난 ‘물’의 상징적 의미를 비교하거나, 여러 작품에 드러난 화자의 태도를 대조하는 문제가 주로 출제됩니다. 또한, 한문학이나 향찰로 기록된 작품을 한국 문학의 범위에 포함하는 근거를 묻는 문제도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므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각 작품의 내용을 작가의 생애나 창작 당시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연결하여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임이어, ㉠물을 건너지 마오	公無渡河
임은 그에 ㉡물을 건너시네	公竟渡河
물에 휩쓸려 돌아가시니	墮河而死
가신 임을 어이할꼬	當奈公何

1. 이 시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노래가 먼저 구전되다가 후대에 한문으로 번역되어 기록되었다.
- ② 배경 설화가 함께 전해지지만, 특정 인물의 탄생 설화와는 관련이 없다.
- ③ 우리나라에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서정 시가이다.
- ④ ‘물’이라는 원형적 상징물을 사용하여 임과의 이별과 죽음이라는 비극성을 심화한다.
- ⑤ 집단 가요에서 개인 서정 시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특징 없이, 완성된 개인 서정시의 형태로 창작되었다.

2. <보기>는 이 시가의 배경 설화이다. <보기>를 바탕으로 이 시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고조선의 진졸 광리자고가 새벽에 일어나 배를 저어서 가는데, 머리가 하얗게 센 미친 사람 [白首狂夫] 하나가 머리를 풀고 병을 들고 물을 건너는 것이었다. 그 미친 사람의 아내가 쫓아오면서 소리쳐 말렸지만 이르지 못하여 미친 사람은 마침내 물에 빠져 죽었다. 그러자 그의 아내는 공후를 타면서 「공무도하가」를 지어 불렀는데, 그 소리가 매우 구슬펄다. 노래가 끝나자 그의 아내도 스스로 물에 몸을 던졌다. 광리자고가 돌아와 아내 여옥에게 그 광경과 노래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여옥이 슬퍼하며 곧 공후로 그 소리를 본받아 타니, 듣고 눈물을 흘리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여옥이 그 소리를 이웃 여자 여용에게 전하니, 이 노래를 ‘공후인’이라 하였다.

- ① 이 시의 화자는 광리자고의 아내인 여옥이다.
- ② 1구에서 화자는 광리자고가 물을 건너는 것을 만류하고 있다.
- ③ 2구의 임은 ‘머리가 하얗게 센 미친 사람’을 가리킨다.
- ④ 3구의 ‘물에 휩쓸려’는 ‘머리가 하얗게 센 미친 사람’의 아내가 물에 몸을 던졌음을 의미한다.
- ⑤ 4구의 ‘가신 임’은 노래를 전해 들은 광리자고의 아내 여옥을 가리킨다.

3.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 ㉡은 시상이 전개되면서 의미가 변화하는 시어이다.
- ② ㉠은 화자가 임에게 건너지 말기를 간절히 바라는 공간이다.
- ③ ㉠은 임에 대한 화자의 사랑을, ㉡은 임과의 이별을 의미한다.
- ④ ㉡은 화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임이 기어코 건너는 공간이다.
- ⑤ ㉠과 ㉡은 모두 임과의 재회를 소망하는 긍정적인 공간이다.

4. <보기>를 참고할 때, 이 시가를 한국 문학에 포함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한국 문학을 한국인이 한국어로 한국인의 사상과 정서를 형상화한 문학만으로 한정하면, 우리말을 적을 수 있는 문자가 없던 시대의 작품들은 한국 문학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나타난다. 한국 문학의 개념은 한국 문학의 범위 설정의 기준이 되므로 한국 문학의 개념을 정의할 때에는 창작 주체, 표현 언어, 내용 외에도 전송 방식, 창작 시기와 공간, 독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① 우리 고유의 문자인 훈민정음으로 충실하게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 ② 괘리자고에 의해 창작되어 그의 아내에게 입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 ③ 창작 주체가 한국인이고 한국인의 정서와 사상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 ④ 신라 시대에 창작되어 당시 서민들의 보편적인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 ⑤ 임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이라는 동아시아의 보편적 정서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5~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狂奔疊石吼重巒
 人語難分咫尺間
 常恐是非聲到耳
 故教流水盡籠山

[현대어 풀이]

미친 듯이 섞어 돌고 겹친 돌들 울리는 소리
 지척(咫尺) 간의 이야기도 분간하기 어렵구나.
 옳고 그름 시비 소리 내 귀까지 들릴까 봐
 일부러 흐르는 물로 하여금 온 산을 감싸게 하였
 구나.

5. 이 시가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다양한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자연과 속세의 조화로운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② 자연물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지는 못한다.
- ③ 반어적 표현을 통해 화자가 처한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자연물에 주관적으로 의미를 부여하여 자연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사실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⑤ 대조적 의미를 지닌 시어를 활용하여 속세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6. 이 시가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깊은 산 속에서 유유자적하며 속세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떨쳐버린 모습을 보인다.
- ② 물소리를 통해 자연의 위대함을 깨닫고, 이를 본받아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려 한다.
- ③ 혼란스러운 속세에서 벗어나 자연에 은둔하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자연 속에서 굳건한 자아를 확립하여 세상의 옳고 그름을 바로잡으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다.
- ⑤ 속세에 대한 미련과 출세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자연에 은거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

7. <보기>를 참고하여 이 시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이 시가의 작자인 최치원은 통일 신라 말기의 학자로, 당나라에서 문장가로 명성이 높았으나 신라로 귀국한 후에는 신분제에 가로막혀 자신의 뜻을 펼치지 못하여 시대를 향한 탄식이 담긴 작품을 주로 썼다. 이 시가는 최치원이 자신의 정치적 이상과 포부를 꺾고 가야산에 은거하며 창작한 한시이다.

- ① 세속을 떠나 자연과 하나가 되려는 '물아일체'의 경지를 보여주고 있어.
- ② 신분제에 대한 강한 불만을 '미친 듯이' 울리는 물소리에 빗대어 직접적으로 표출하고 있어.
- ③ 자신의 뜻을 펼치지 못한 것에 대해 부끄럽게 여기며 깊은 산속에서 자책하는 모습이 나타나.
- ④ 자신의 정치적 이상과 포부를 꺾고 현실에서 도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러나는 것 같아.
- ⑤ 현실의 시련을 딛고 훗날 더 큰 뜻을 펼치기 위해 자연 속에서 힘을 기르는 모습이 보여.

【8~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임이여, 물을 건너지 마오	公無渡河
임은 그에 물을 건너시네	公竟渡河
㉠ 물에 휩쓸려 돌아가시니	墮河而死
가신 임을 어이 할꼬	當奈公何

(나) 狂奔疊石吼重巒
 人語難分咫尺間
 常恐是非聲到耳
 故教流水盡籠山

[현대어 풀이]

미친 듯이 섞어 돌고 겹친 돌들 울리는 소리
 지척(咫尺) 간의 이야기도 분간하기 어렵구나.

옹고 그림 시비 소리 내 귀까지 들릴까 봐
 일부러 흐르는 ㉡ 물로 하여금 온 산을 감싸게 하였구나.

8.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 모두 화자의 정서 변화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 ② (가)와 (나) 모두 먼저 자연을 묘사하고 그다음에 화자의 정서를 노래하는 방식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화자의 시선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 ⑤ (나)는 (가)와 달리 자연물과 대화하는 형식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9. (가)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구에서는 임이 물을 건너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만류하고 있다.
- ② 2구에서는 만류에도 불구하고 물을 건너는 임에 대한 불안하고 초조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③ 3구에서는 결국 물에 빠져 죽은 임의 모습을 보며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
- ④ 4구에서는 임을 잃은 것에 대한 슬픔과 함께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체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⑤ 4구에서는 임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현실을 부정하며 후회하고 있다.

10. <보기>의 밑줄 친 시어 중 (나)의 '시비 소리'와 그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보기>

① 까마귀 검다 하고 ② 해오라비 희다 하네
 ③ 황새 다리 길다 하고 ④ 오리 다리 짧다 하네
 세상의 ⑤ 흑백장단(黑白長短)은 나는 몰라 하노라.
 - 작자 미상

11.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모두 화자에게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이다.
- ② ㉠은 ㉡과 달리 화자의 의지가 투영된 존재이다.
- ③ ㉠은 이별과 죽음을, ㉡은 속세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상징적 존재이다.
- ④ ㉡은 ㉠과 달리 상황에 따라 속성이 변화하는 존재이다.
- ⑤ ㉡은 ㉠과 달리 화자와 외부 세계를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존재이다.

12. (가)와 (나)를 시 영상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1구: 강을 건너려는 임과 그 뒤에서 애타게 소리치며 뒤쫓는 화자의 모습을 클로즈업한다.
- ② (가)의 3~4구: 거센 물살에 휩쓸리는 임의 모습을 보여준 뒤, 강가에 주저앉아 절망하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주며 슬픈 배경 음악을 사용한다.
- ③ (나)의 1~2구: 거대한 바위 사이로 세차게 흐르는 계곡물의 모습을 역동적으로 보여주며, 웅장한 물소리를 효과음으로 사용한다.

- ④ (나)의 3구: 시끄러운 속세의 시장 풍경과 산속의 고요한 풍경을 교차 편집하여 공간의 대비를 보여준다.
- ⑤ (나)의 4구: 화자가 흐르는 물을 보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다짐하는 밝은 표정을 보여준다.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임이여, 물을 건너지 마오 公無渡河
 임은 그에 물을 건너시네 公竟渡河
 ㉠ 물에 휩쓸려 돌아가시니 墮河而死
 가신 임을 어이할꼬 當奈公何

(나) 미친 듯이 섞어 돌고 겹친 돌들 울리는 소리
 지척(咫尺) 간의 이야기도 분간하기 어렵구나.
 웅고 그름 시비 소리 내 귀까지 들릴까 봐
 일부러 흐르는 ㉡ 물로 하여금 온 산을 감싸게 하였구나.
 狂奔疊石吼重巒
 人語難分咫尺間
 常恐是非聲到耳
 故教流水盡籠山

13.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우리 문자가 없던 시절에 창작되어 한자로 기록된 작품이다.
- ② (가)에서 나타나는 임의 부재에 의한 슬픔이라는 정서는 현대시에서도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주제이다.
- ③ (가)는 개인의 슬픈 감정을 노래하고 있어 개인적 서정시의 성격을 띠지만, 원시적 집단 가요의 성격도 함께 지니고 있다.
- ④ (나)는 7언 절구라는 정형화된 형식 속에 화자의 현실 도피적 태도가 함축적으로 드러난다.
- ⑤ (나)는 순우리말 표현을 사용하여, 당시 지식인들이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추구했음을 보여 준다.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⑤

이 작품은 여러 사람이 함께 부르던 집단 가요에서 개인의 정서를 노래하는 개인 서정시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단계의 작품으로 평가된다.

- ① 구비 전승되다가 한역된 고대 가요이다.
- ② 백수 광부 부부의 비극적 사랑을 다룬 배경 설화가 전해지나, 영웅의 출생을 다루는 탄생 설화는 아니다.
- ③ 현재까지 전해지는 우리나라의 서정 시가 중 가장 오래된 작품이다.
- ④ ‘물’은 사랑, 이별, 죽음을 의미하는 원형적 상징물로 기능한다.

2. 정답 ③

2구에서 화자가 건너지 말라고 애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건너는 ‘임’은 <보기>의 ‘머리가 하얗게 센 미친 사람(백수 광부)’에 해당한다.

- ① 화자는 ‘백수 광부의 아내’이며, 여옥은 노래를 전승하는 역할을 한다.
- ② 화자는 ‘백수 광부의 아내’이고, 그녀가 만류하는 대상은 남편인 ‘백수 광부’이다.
- ④ 시의 내용에서 ‘물에 휩쓸려’ 돌아가신 주체는 ‘임(백수 광부)’이다. 그의 아내는 노래를 부른 뒤 스스로 물에 몸을 던졌다.
- ⑤ 4구의 ‘가신 임’은 물에 빠져 죽은 ‘백수 광부’를 의미한다.

3. 정답 ⑤

㉠은 임과의 사랑을 의미하지만, ㉡은 이별의 공간으로, 시 전체적으로 ‘물’은 결국 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부정적인 공간으로 기능한다. 재회에 대한 소망과는 거리가 멀다.

- ① 1구의 ‘물’은 사랑, 2구의 ‘물’은 이별, 3구의 ‘물’은 죽음과 단절로 시상 전개에 따라 의미가 변한다.
- ② 1구에서 화자는 ‘물을 건너지 마오’라고 말하며 임이 ㉠을 건너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 ③ 1구의 ‘물’은 임에 대한 사랑을, 2구에서 임이 건

너는 ‘물’은 임과의 이별을 상징한다.

- ④ 2구에서 ‘임은 그에 물을 건너시네’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은 화자의 만류가 소용없게 된 공간이다.

4. 정답 ③

<보기>에 따르면 창작 주체와 내용(사상과 정서)은 한국 문학의 범위를 설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공무도하가」는 한국인(백수 광부의 아내)이 창작했으며, 임을 잃은 슬픔이라는 한국인의 보편적 정서를 담고 있으므로 한국 문학에 포함된다.

- ① 이 작품은 한글 창제 이전에 창작되어 한자로 번역되어 전해진다.
- ② 창작자는 ‘백수 광부의 아내’이다.
- ④ 이 작품의 배경은 고조선으로, 신라 시대보다 앞선 시기이다.
- ⑤ 동아시아의 보편적 정서가 아니라, ‘한국인’의 정서를 담았다는 점이 한국 문학으로 보는 근거이다.

5. 정답 ⑤

이 시는 자연의 소리인 ‘물소리’와 속세의 소리인 ‘시비 소리’를 대조하여, 속세를 벗어나 자연에 머물고 싶어 하는 화자의 태도를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 ① ‘물소리’와 ‘시비 소리’라는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고 있으나, 두 공간의 조화가 아닌 단절과 대립을 보여준다.
- ② ‘물’에 ‘속세와의 단절’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 ③ 이 시에는 반어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 ④ 화자는 ‘물’이라는 자연물에 ‘시비 소리를 막아주는 존재’라는 주관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객관적 정보를 전달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6. 정답 ③

화자는 세상의 ‘시비 소리’가 들리는 것이 두려워 일부러 물소리로 온 산을 감싸게 했다고 말한다. 이는 속세의 혼란스러움에서 벗어나 자연에 은거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낸 것이다.

- ① 속세의 소리가 들릴까 두려워하는 모습에서 아직 속세에 대한 미련이나 관심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② 자연의 위대함을 예찬하기보다는, 물소리를 속

세와 단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

- ④ 세상의 시비를 바로잡으려는 적극적 태도보다는, 그것을 피하려는 소극적이고 현실 도피적인 태도를 보인다.
- ⑤ 시에는 자연에 은거하는 것을 주저하는 마음이 아니라, 세상과 단절하려는 화자의 단호한 의지가 나타난다.

7. **정답** ④

<보기>에서 작가가 자신의 뜻을 펼치지 못하고 가야산에 은거했다는 정보를 고려할 때, 이 작품은 그의 정치적 좌절감과 현실을 벗어나고 싶은 도피적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① 자연을 도구로 삼아 속세와 단절하려는 태도일 뿐, 자연과 하나가 되려는 몰아일체의 경지로 보기는 어렵다.
- ② 신분제에 대한 불만은 시를 창작하게 된 배경일 뿐, 시어에 직접적으로 표출되지는 않았다.
- ③ 시에서는 자책이나 부끄러움과 같은 정서는 드러나지 않는다.
- ⑤ 훗날을 도모하기보다는 현실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는 단절의 의지만 나타난다.

8. **정답** ③

(가)는 임이 물을 건너기 전(만류), 건너는 중(체념), 건너 후(죽음과 한탄)의 시간적 흐름에 따라 화자의 정서가 변화하며 시상이 전개된다.

- ① (나)는 정서의 변화가 아닌 '선경후정'의 구조에 따라 시상이 전개된다.
- ② (가)는 사건의 전개에 따라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표출되며, 선경후정의 방식은 (나)에만 해당한다.
- ④ (나)는 특정 공간(가야산)에서의 감각적 경험과 내면의 정서를 노래하고 있어 시선 이동이 두드러지지 않는다.
- ⑤ 두 작품 모두 자연물과 대화하는 형식은 나타나지 않는다.

9. **정답** ⑤

4구의 '가신 입을 어이할꼬'라는 표현은 임의 죽음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에 대한 슬픔과 한탄, 체념의 정서를 드러내는 것이다. 현실을 부정하거

나 후회하는 태도로 보기는 어렵다.

- ① '물을 건너지 마오'라는 직접적인 표현에서 만류의 태도를 알 수 있다.
- ② '그에 물을 건너시네'라는 표현에는 화자의 만류가 소용없게 된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과 불안함이 담겨 있다.
- ③ '물에 휩쓸려 돌아가시니'는 임의 죽음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며 화자의 절망감을 보여준다.
- ④ 입을 잃은 슬픔과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체념적 한탄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10. **정답** ⑤

(나)의 '시비 소리'는 세상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소란스러운 소리를 의미하며, 화자가 벗어나고 싶어 하는 부정적 대상이다. <보기>의 '흑백장단' 역시 검고 흰 것, 길고 짧은 것을 따지는 세상의 판단과 분별을 의미하므로 '시비 소리'와 의미가 가장 유사하다.

- ①, ②, ③, ④ '까마귀', '해오라비', '황새', '오리'는 세상 사람들이 흑백과 장단을 임의로 판단하는 대상이 되는 자연물일 뿐, 판단 행위 자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11. **정답** ③

(가)에서 ㉠'물'은 입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별과 단절의 공간이다. 반면 (나)에서 ㉡'물'은 시끄러운 물소리로 속세의 '시비 소리'를 차단해주는 긍정적 기능을 하므로, '속세와의 단절'을 상징한다.

- ① ㉠은 입을 죽게 만드는 부정적 공간이다.
- ② 화자의 의지가 투영된 것은 속세의 소리를 막기 위해 일부러 찾은 ㉡이다.
- ④ 상황에 따라 속성이 변화(사랑→이별→죽음)하는 것은 ㉠이다.
- ⑤ ㉡은 화자와 외부 세계를 단절시키는 역할을 한다.

12. **정답** ⑤

(나)의 화자는 속세와의 단절을 위해 자연을 찾은 것이므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다짐하기보다는 현실의 번뇌에서 벗어나려는 현실 도피적 태도를 보인다. 따라서 밝은 표정보다는 고뇌에서 벗어나 평온을 찾으려는 차분한 표정이 더 적절하다.

- ① 1구는 임을 만류하는 장면이므로 적절하다.
- ② 3~4구는 임의 죽음과 그로 인한 슬픔을 표현하므로 적절하다.
- ③ 1~2구는 거센 물소리를 묘사하는 부분이므로 적절하다.
- ④ 3구의 '시비 소리'와 자연의 대비를 보여주는 것은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이다.

13. 정답 ⑤

(나) 「제가야산독서당」은 신라 시대의 지식인 최치원이 창작한 한시(漢詩)로, 한자를 사용하여 창작되었다. 따라서 순우리말 표현을 사용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① 두 작품 모두 한글 창제 이전에 창작되어 한자로 기록되거나 번역되어 전해진다.
- ② 사랑하는 사람의 부재로 인한 슬픔은 시대를 초월하여 나타나는 보편적인 정서이다.
- ③ (가) 「공무도하가」는 집단 가요에서 개인 서정시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작품으로 평가된다.
- ④ (나)는 7언 절구라는 간결한 한시 형식 속에 속세를 떠나려는 화자의 복잡한 심경을 응축하여 표현하고 있다.